

제62호(2013. 7. 3.)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문 한 필 이 현 근 남 기 천

1. 한·EU FTA 농축산물 양허내용	3
2. 한·EU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변화	5
3. 주요 품목별 EU산 수입변화와 국내시장 파급영향	8
4. FTA 파급효과와 보완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13
5. 한·EU FTA 이행 2년 평가와 정책과제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정민국 연구위원 02-3299-4263 mkjeong@krei.re.kr
내용 문의: 문한필 부연구위원 02-3299-4259 hanpil@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7월 1일부터 한·EU FTA 이행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0개의 FTA 가운데 한·미 FTA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제시한 협정으로, 협상 당시 EU에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와 유제품, 감자(전분), 보리, 포도주 등이었음.

한·EU FTA 발효 기존 교역품목의 수출입은 크게 늘었지만, 신규 품목의 교역 규모는 아직까지 미미함. FTA 이행 첫째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늘었으나(30.6억 달러, 전년 대비 20.5% 증가) 이행 2년차에는 감소함(25.7억 달러, 전년 대비 9.1% 감소). 이는 2010년 말 구제역 발병에 따른 일시적인 국내 축산물 공급부족으로 이행 첫째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국내 공급이 회복됨에 따라 이행 2년차에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임. 아직까지는 FTA 이행 초기에 해당되며, 구제역 여파 등 국내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FTA 파급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움. 다만, 구제역 발병 이후에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EU산 돼지고기는 연차별 관세인하 혜택을 통해 현재 점유율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FTA 이행으로 매년 증량되는 무관세쿼터와 연차별 관세인하로 EU산 유제품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함에 따라 점진적인 수입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양돈과 낙농 분야의 전문가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의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과 축산농가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농가는 국내 요인보다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돼지 사육두수 증가와 시유 소비 정체 등의 국내 요인을 지적함. 이러한 인식 차이는 농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를 포함하여 전문가와 농업인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함. 한편, FTA 이행에 대응한 최우선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과 농업인 모두 '경쟁력 제고와 수급관리'를 지적하였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경쟁력제고 투융자사업(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가 중요하며, 적극적인 수급관리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축산물 공급조절 외에도 수요확대 관련 신규정책 개발이 필요함.

1. 한·EU FTA 농축산물 양허내용

-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0개 FTA 중에서 한·미 FTA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제시한 협정¹⁾
 - 농업분과 협상 대상품목 1,449개(HS 2006 기준) 중, 민감성이 낮은 905개(62.5%) 품목의 관세는 즉시철폐 포함 5년 이내 철폐하기로 함²⁾
 - 쌀은 관세양허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설정하거나, 계절관세, 저율관세쿼터(TRQ),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 FTA 협상 당시 EU에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품목은 돼지고기와 유제품, 감자(전분), 보리, 포도주 등
 - 2010~2012년 평균 국내 농축산물 수입액(279억 달러) 중 EU산은 9.5%(26.6억 달러)를 차지함
 -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최근 3년간 EU산 수입 비중은 각각 42.8%와 31.8%이며, 그밖에 감자, 보리, 포도주의 평균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5.6%, 4.5%, 57.9%로 FTA 발효 후 소폭 증가
- 한·EU FTA의 발효에 앞서, 정부는 2010년 11월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시설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수립

-
- 1) 한·EU FTA의 농축산물 관세철폐율은 91.5%로 한·미 FTA의 98%보다 낮음. 양념채소류에 대한 현행 관세유지, 일부 축산물의 관세 철폐기간 연장 등 한·EU FTA의 농축산물 개방수준은 한·미 FTA에 비해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 이들 품목은 주로 가공용 원료, 사료곡물, 종자(종축)용 등으로 원료 또는 투입재 성격이 강함

표 1. 한-EU FTA 주요 농축산물 양허 내용

품 목	양허 내용
쌀	양허 제외
보리(269~513%)	15년 철폐, TRQ(1년차 10,000톤~15년차 16,664톤), ASG
감자(27~3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냉장(304%): 현행유지 • 감자전분: 15년 철폐, ASG • 종자용(27%): 10년 철폐 • 냉동(27%): 5년 철폐
옥수수(226~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팝콘용(630%): 13년 철폐, ASG(이행 4년차까지 2단계 발동기준물량 설정) • 종자용(328%): 5년 철폐 • 전분(226%): 15년 철폐
대두(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487%): 현행유지 • 채유 및 박용(487%): 5년 철폐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40%): 15년 철폐, ASG(1년차 9,900톤, 15년차 13,062톤, 매년 2% 증량) • 족/꼬리(18%), 쇠고기 가공품(72%): 15년 철폐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삼겹살(25%): 10년 철폐 • 냉동 족(18%), 밀폐가공품(30%): 6년 철폐 • 냉장 삼겹/갈비/목살(22.5%): 10년, ASG(163~194톤, 매년 3톤 증량) • 냉장/냉동 도체 및 이분도체, 전지/후지, 냉동육, 설육, 소시지, 가공품: 5년 철폐
닭고기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가슴살 및 날개(20%): 13년 철폐, 냉장육(18%), 냉동다리(20~22.5%): 10년 철폐 • 삼계탕(30%): 10년 철폐
낙농품(분유 176%, 연유 89%, 유장 49.5%, 치즈 36%, 버터 89%, 밀크/크림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유, 연유: 현행유지, TRQ(1,000톤, 매년 3% 증량) • 혼합분유(36%), 조제분유(36~40%): 10년 철폐, TRQ(조제분유 450톤, 매년 3% 증량) • 발효유(30%): 10년 철폐, • 유장: 10년 철폐, TRQ(3,350톤, 매년 3% 증량) • 치즈: 10년(체다)/15년(기타) 철폐, TRQ(4,560톤, 매년 3% 증량) • 버터: 10년 철폐, TRQ(350톤, 매년 3% 증량) • 밀크(지방 6% 이하): 15년 철폐, 밀크(지방 6% 초과): 13년 철폐, 냉동크림: 10년 철폐
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꿀(243%): 현행유지, TRQ(50톤, 매년 3% 증량) • 인조꿀(243%), 로열제리(8%), 벌꿀조제품(8%): 10년 철폐
사과(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지: 세번 분리, 20년 철폐, ASG(23년), 발동기준은 모든 종류의 사과를 포함하며, 이행 11년차부터는 후지사과만 적용) • 기타: 10년 철폐, ASG(10년)
배(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배: 세번 분리, 20년 철폐 • 기타: 10년 철폐
포도(45%)	계절관세 → 5.1~10.15: 17년 철폐, 10.16~4.30: 24% 시작, 5년 철폐
오렌지(50%)	계절관세 → 9~2월: 현행유지, TRQ(20톤→11년차 60톤), 3~8월: 30% 시작, 7년 철폐
감귤(144%)/키위(45%)	15년 철폐
복숭아/단감(45%)	10년 철폐
수박/멜론(45%)	12년 철폐
딸기(3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45%): 10년 철폐(초본), 12년 철폐(나무) • 냉동(30%): 5년 철폐 • 저장(30~45%): 즉시 철폐(일시저장), 7년 철폐(조제저장처리)
토마토(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냉장(45%): 7년 • 쥬스(30%), 소스: 5년 • 케첩(8%), 페이스트(5%): 즉시철폐
고추(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냉장/건조/가루(270%): 현행유지 • 냉동(27%): 15년 철폐
마늘(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간/일시저장/건조(360%): 현행유지 • 냉동(27%): 15년 • 조제저장(30%): 5년
양파(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건조(135%): 현행유지 • 냉동(27%): 12년 철폐 • 조제저장(30%): 5년
파(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30%): 7년 • 조제저장 쪽파(30%): 5년 • 쪽파/기타파속채소(27%): 즉시 철폐
무(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10년 철폐 • 건조: 7년 철폐
배추(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냉장: 5년 철폐 • 케일류: 즉시 철폐
양배추(2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즉시 철폐 • 건조: 10년 철폐
당근(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5년 철폐 • 건조: 7년 철폐 • 일시저장처리: 10년
참깨, 참기름(630%)	18년 철폐
생강(3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18년 철폐 • 설탕저장처리(30%): 5년 철폐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삼, 홍삼, 백삼 등 7 품목(222.8~754.3%): 현행유지 • 홍삼가공품 6 품목(754.3%): 15년 철폐, ASG(18년) • 인삼차, 홍삼차, 인삼음료 등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 10년 철폐 • 백삼분 2 품목(20%): 13년 철폐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주(15%): 즉시 철폐 • 스카치, 버본, 아이리쉬 위스키(20%): 3년 철폐

2. 한·EU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변화

□ FTA 이행 첫해에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늘었으나 이행 2년차에는 감소. 대(對) EU 농축산물 수출 또한 이행 첫해 증가한 다음 2년차에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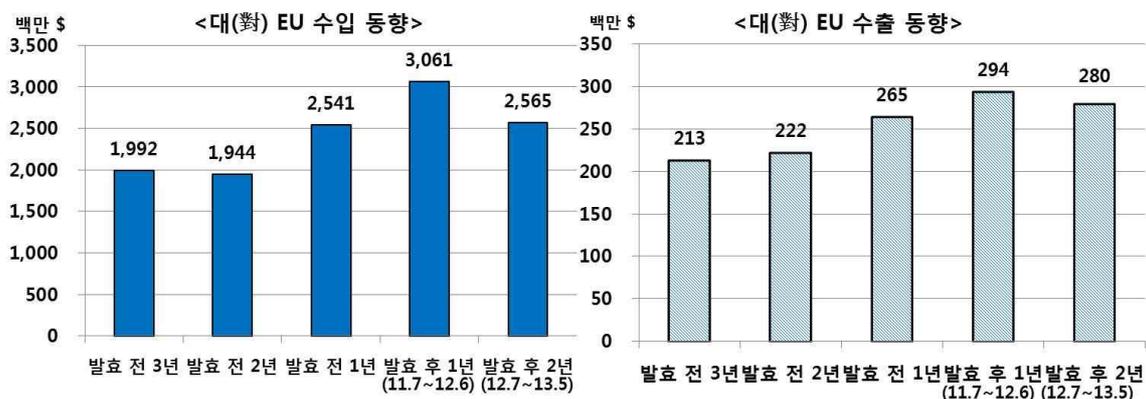
○ EU산 농축산물의 1년차(11.7~12.6) 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5% 증가한 30.6억 달러, 2년차(12.7~13.5) 수입액은 전년 대비 9.1% 감소한 25.7억 달러

- 2010년 말 구제역 발병에 따른 일시적 공급부족으로 한·EU FTA 이행 첫해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국내 공급이 회복됨에 따라 이행 2년차에는 수입 감소

○ 대(對) EU 농축산물 수출액은 이행 첫해에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9억 달러, 2년차에 전년 대비 3.9% 감소한 2.8억 달러를 기록함

- 이행 2년차 수출 감소는 2011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소비둔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

그림 1. 대(對) EU 농축산물 교역 동향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 부류별로 보면, FTA 이행 2년 동안 EU산 축산물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51.9%), 수출은 농산물가공식품이 크게 증가(24%)

표 2. 대(對) EU 농축산물 부류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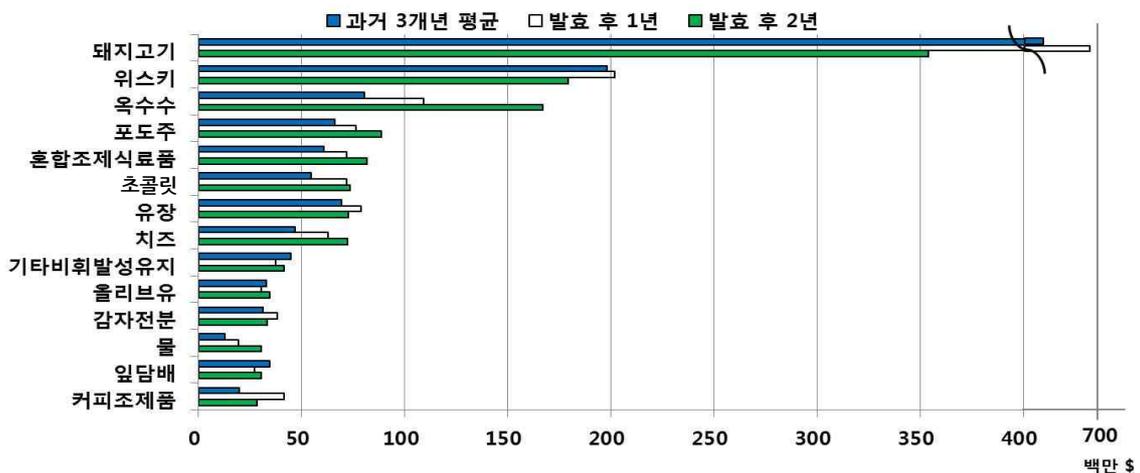
구 분	수 입			수 출			
	발효 전 2년 (09.7~11.5)	발효 후 2년 (11.7~13.5)	증감율	발효 전 2년 (09.7~11.5)	발효 후 2년 (11.7~13.5)	증감율	
총 계	4,227	5,626	33.1	461	574	24.5	
농 산 물	곡물	333	422	26.7	2.50	2.48	-0.7
	과일·채소	109	152	39.6	32	38	20.9
	가공식품	1,883	2,343	24.4	393	488	24.0
	소계	2,325	2,916	25.4	428	529	23.7
	축산물	1,357	2,061	51.9	20	24	21.6
임산물	546	649	18.9	13	21	57.2	

주: 곡물은 곡류, 서류, 두류, 전분, 채유종실, 박류, 기타곡식의 합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
 화, 버섯(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합계. 가공식품은 농산물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 이행 첫해 EU의 주력 품목인 돼지고기, 포도주, 유장, 치즈 등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긴급할당관세가 종료된 이후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이행 2년차(12.7~13.5) 수입액은 감소

- 한·EU FTA 이행 2년차에 돼지고기 수입(3억 5천만 달러)은 전년 동기간 대비 44.6% 감소. 유장과 탈지분유도 각각 7.5%, 75.8% 감소함
- 반면, 옥수수(1억 7천만 달러), 포도주(9천만 달러), 혼합조제식료품(8천만 달러)은 각각 전년 대비 53.3%, 15.6%, 13.9% 증가

그림 2. 대(對) EU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상위 20위 이내)



주1) 품목별 수입통계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3년 AG-code를 기준으로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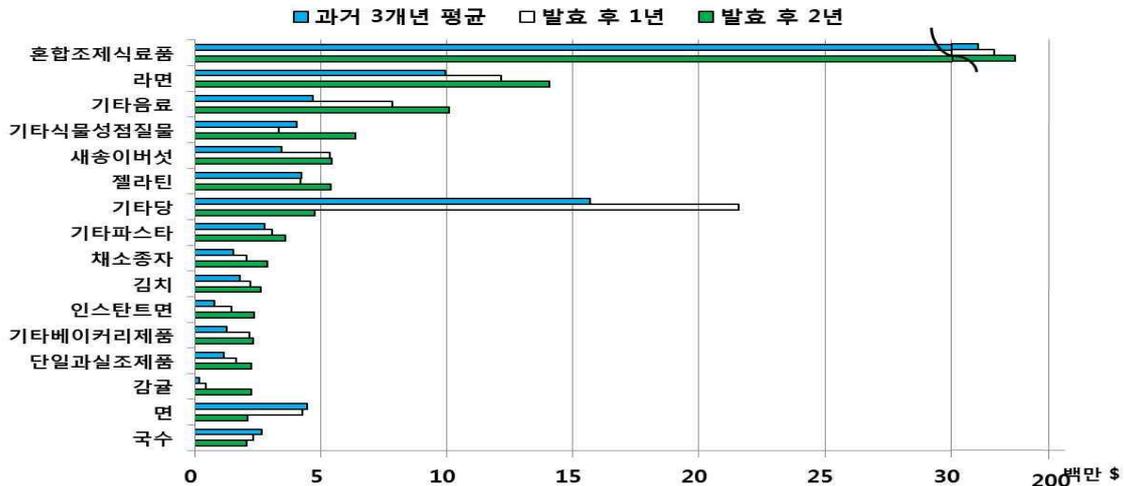
2) 발효 후 1년은 11.7~12.5, 발효 후 2년은 12.7~13.5 기간의 수입액을 나타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 대(對) EU 수출은 관세혜택 품목인 혼합조제식료품, 김치, 새송이버섯 등을 중심으로 2년 연속 증가³⁾

- 이행 2년차에 EU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1억 6천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
 - 라면(1,400만 달러, 15.8% ↑), 새송이버섯(540만 달러, 1.6% ↑), 김치(262만 달러, 17.9% ↑), 감귤(224만 달러, 384.5% ↑)

그림 3. 대(對) EU 주요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상위 20위 이내)



주1) 품목별 수출통계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2013년 AG-code를 기준으로 집계함.

2) 발효 후 1년은 11.7~12.5, 발효 후 2년은 12.7~13.5 기간의 수입액을 나타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 한·EU FTA 이행으로 기존에 수입되고 있던 EU산 농식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신규 품목의 교역규모는 아직까지 미미⁴⁾

- EU로부터 기존에 수입되던 415개 품목의 수입액은 11.3억 달러 증가한 반면, 신규로 수입한 35개 품목의 총액은 1천만 달러에 불과
 - EU산 축산물(62개 품목) 수입액 증가: 5억 8천만 달러
 - EU산 기타가공식품(177개 품목) 수입액 증가: 3억 6천만 달러
- EU시장으로 기존에 수출되고 있던 국내 농식품(244개)의 수출액도 8천만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나, 55개 신규 수출품목의 금액은 2백만 달러에 그침

3) 혼합조제식료품(기본관세 9%), 김치(17.6%), 새송이버섯(6.4%)은 EU측 양허에서 즉시 철폐된 품목임

4) 한·EU FTA 발효 전후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의 집약도 및 다양도 변화는 <부표 3> 참조

3. 주요 품목별 EU산 수입변화와 국내시장 파급영향

3.1. EU산 돼지고기 수입변화

□ 한·EU FTA 이행 첫해 EU산 돼지고기 수입은 국내 구제역(FMD) 발병에 따른 긴급할당관세 적용으로 크게 증가

- 국내 구제역 발병 이후 2011년 초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36만 톤의 돼지고기가 할당관세(무관세)물량으로 수입됨
 - FMD가 발병한 2010년 12월에 돼지 사육두수는 988만 마리에서 2011년 3월에 704만 마리로 감소(돼지 332만 마리 매몰 처분)

- 그러나 FMD 이후 급속한 모돈 입식 증가로 2012년 12월 돼지 사육두수는 992만 마리까지 빠르게 회복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됨

□ 국내 돈육시장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이행 2년차 수입량은 크게 감소

-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EU·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가격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⁵⁾
 - FTA 이행 첫해와 비교하여 이행 2년차 국내 돼지 도축두수는 31.5% 증가한 결과, 돼지 경락가격은 31.7% 하락(그림 4 우측하단)
 - 전체 돼지고기 수입의 감소추세와 함께 이행 2년차 EU산의 수입점유율 또한 전년에 비해 하락(44.8%→37%)한 반면, 미국산 수입비중은 증가(29.8%→34.7%)
 - EU산 냉동삼겹살의 이행 2년차 수입량은 5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6% 감소(수입단가도 3.98 \$/kg으로 전년 대비 3.5% 하락)

5) EU에서는 냉동삼겹살을, 미국에서는 냉동돼지고기(목살, 전지)를 주로 수입하고 있음. 전체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추세이나 EU 경쟁국들의 수입비중은 증가 추세임(부표 3~4 참조). 2013년 상반기 FTA 특혜관세는 미국산(8.3%)과 칠레산(2.4%)이 EU산(20.4%)보다 크게 낮음(<표 3>의 냉동삼겹살 관세 참조)

○ 구제역 발병 이후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던 EU산 돼지고기는 연차별 관세인하 혜택을 통해 현재의 점유율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부표 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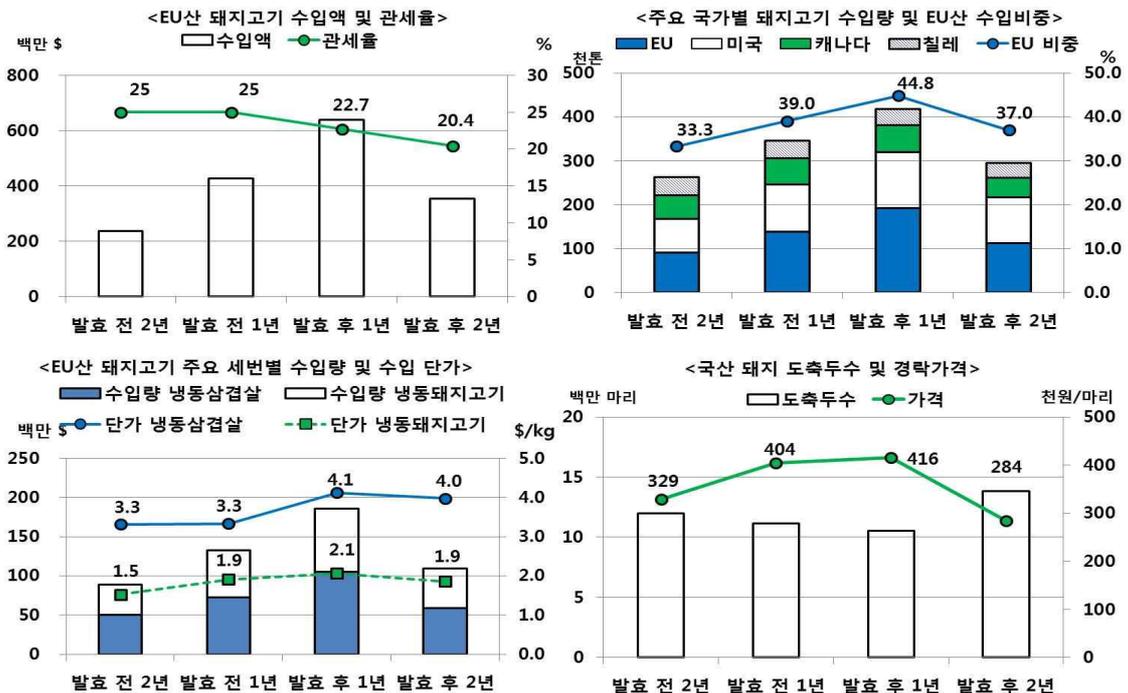
표 3. 돼지고기 주요 세번별·국가별 FTA 특혜관세율 추이

단위: %

구 분	기본 관세	국가	양허유형	발효 1년차 (11.7~12.6)		발효 2년차 (12.7~13.6)		발효 3년차 (13.7~14.6)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냉장삼겹살 (0203.19.1000)	22.5	EU	10년	20.4	18.4	16.3			
		미국		22.5	20.2	18	15.7		
		칠레		5.3	4.2	2.1	0		
냉동삼겹살 (0203.29.1000)	25	EU	10년	22.7	20.4	18.1			
		미국	2014년 철폐	25	16.6	8.3	0		
		칠레	10년	7.2	4.8	2.4	0		
냉동돼지고기 (0203.29.9000)	25	EU	5년	20.8	16.6	12.5			
		미국	2016년 철폐	25	16	12	8		
		칠레	10년	7.2	4.8	2.4	0		

주: 2012년 미국의 관세율은 3월 15일~12월 31일까지의 관세율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그림 4. EU산 돼지고기 수입 관련 동향



주1) EU 관세율은 냉동삼겹살 기준, 국별 수입량은 냉동·냉장삼겹살, 냉동돼지고기, 기타냉동설육 합계.
 2) 발효 전후 1년, 2년은 당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관세청,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3.2. EU산 유제품 수입변화

□ 한·EU FTA 발효로 대부분의 EU산 유제품은 무관세 TRQ 증량과 관세감축이 동시에 진행

- EU산 탈지·전지분유에 대해서는 무관세 킬터(1,000톤, 매년 3% 증량)를 제공하는 대신 176%의 현행관세가 유지됨
- 반면, 치즈(무관세 킬터 4,560톤, 매년 3% 증량) 및 밀크와 크림 관세는 10~15년 철폐, 버터(무관세 킬터 350톤, 매년 3% 증량) 및 유장(무관세 킬터 3,350톤, 매년 3% 증량)관세는 10년 철폐

□ EU산 유제품 또한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FTA 이행 첫해는 수입이 급증했다가 2년차에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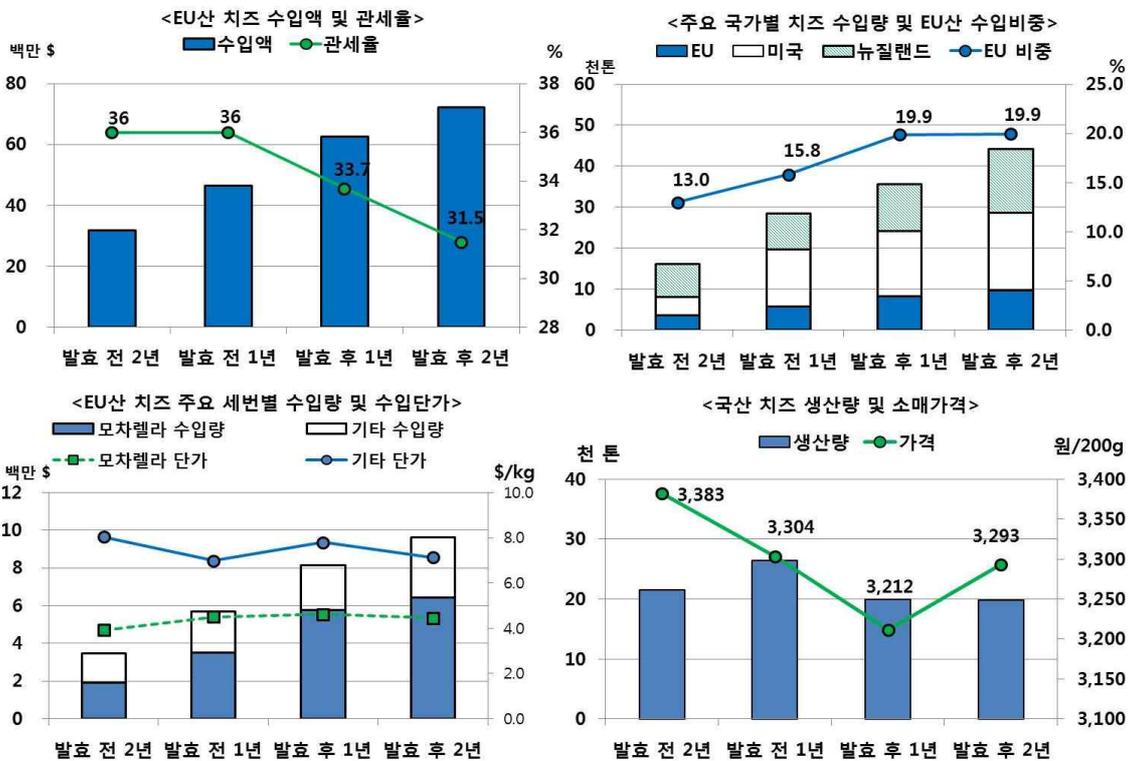
- 이행 첫해의 수입 증가는 국내 FMD 발병에 따른 젖소 사육두수 감소(원유 생산량 감소)로 2011년 초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8만 4천 톤의 수입 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결과임
- 할당관세가 종료되면서 이행 2년차 EU산 유제품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EU산 주요 유제품의 FTA 발효 후 2년간 수입 비중은 발효 전 2년에 비해 대부분 상승함
 - FTA 이행으로 매년 증량되는 EU산 유제품의 무관세킬터와 연차별 관세인하로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유리한 위치 점유
 - EU산 탈지분유의 수입비중은 28.1%에서 52.6%, 전지분유는 11.6%에서 23%, 조제분유는 5.3%에서 22.7%, 냉동크림은 78.2%에서 86%, 카세인은 42.9%에서 63.6%로 상승⁶⁾

□ 한·EU FTA 이행에 따라 국내 수입시장에서 경쟁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EU로의 수입선 전환 예상

6) FTA 발효 전후의 EU산 유제품 수입(비중) 변화는 <부표 6~7> 참조

- 치즈는 EU, 미국,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EU산 치즈의 수입 비중은 FTA 발효 전 14%에서 발효 후 20%로 상승함⁷⁾
- 국내 수입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EU산 치즈의 수입단가는 이행 2년차에 하락함
 - 수입량이 가장 큰 모차렐라 치즈는 4.62 \$/kg에서 4.46으로, 가우더 치즈는 4.86에서 4.18로, 기타가공 치즈는 11.26에서 11.17로 하락

그림 5. EU산 치즈 수입 관련 동향



- 주1) EU산 치즈 관세율은 모차렐라 치즈 기준.
 - 2) 국가별 치즈 수입량은 주로 수입되는 모차렐라, 가우더, 기타가공 치즈의 합계임.
 - 3) 국내 생산량은 자연치즈와 가공치즈의 합계이며, 가격은 수도권 4대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가격.
-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관세청, 낙농진흥회.

□ 우유소비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FTA 이행에 따른 EU산 유제품 관세인하와 TRQ 증량은 장기적으로 잉여원유 증가와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시유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EU산 치즈류는 TRQ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36%의 관세가 15년 동안 철폐됨

3.3. EU산 기타 농축산물 수입변화⁸⁾

□ 기존에 EU산 수입 비중이 높은 포도주, 감자전분, 맥주, 초코렛 등의 수입량(수입비중)은 꾸준한 증가세

- 포도주는 주로 EU, 칠레,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며, 15%의 현행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EU산의 수입비중은 49.3%(발효 전 2년간)에서 51.4%(발효 후 2년간)로 소폭 증가함
- 한·EU FTA에 따라 455%의 관세가 15년 동안 철폐되는 EU산 감자전분의 수입비중은 95.6%에서 96.8%로 확대됨
- 미국, 일본, EU에서 주로 수입되는 맥주는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수입비중이 40%에서 42.6%로 증가함
- 미국, EU, 싱가포르에서 주로 수입되는 초코렛의 EU산 수입비중은 30.2%에서 34.5%로 증가함

□ EU산 옥수수⁹⁾ 수입 증가는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주산지 기후나 국제가격과 같은 국제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라 수입선이 다변화되면서 나타난 결과

- 북미지역을 포함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여파로 국제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던 국내 곡물·사료 수입업체는 2012년 초부터 남미와 유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경향임
 - 그 결과 EU산 옥수수수입 비중은 FTA 이행 전 15%에서 이행 후 18.1%로 증가한 반면, 미국산 수입비중은 64.2%에서 16.7%로 감소

8) FTA 발효 전후의 EU산 기타 농축산물의 수입(비중) 변화는 <부표 8-9> 참조

9) EU산 옥수수는 팍콘용(기본관세 630%)은 13년 철폐(ASG 15년), 종자용(328%)은 5년, 전분 (226%)은 15년 철폐

4. FTA 파급효과와 보완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 양돈과 낙농 분야의 전문가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EU FTA 이행이 국내 수급여건 변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검토¹⁰⁾
 - 분야별 전문가 70명을 표본으로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함¹¹⁾
 - 국산 돼지고기 가격하락 요인(국내 원유 생산여건 변화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양돈(낙농) 관련 FTA 보완대책 세부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조사
 - 양돈과 낙농 분야 생산자 200명을 대상으로 세부항목별 기여도를 직접 문의하는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¹²⁾, 최근 수급여건 악화의 원인과 정책대응에 관한 전문가 그룹과 생산농가의 인식을 비교함

4.1. 국내 돼지고기 가격하락에 대한 인식

- 양돈 전문가 조사(AHP) 결과, 최근 돼지고기 가격하락의 요인별 중요도는 ①국내 공급 증가(0.60), ②수입 증가(0.28), ③국내 수요 감소(0.12) 순으로 나타남

-
- 10) 한·EU FTA가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측하기에는 축적된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파급영향과 정책대응에 관한 정성적인 평가를 시도
- 11) 2013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수는 양돈 분야가 49명, 낙농 분야가 46명으로 각각 70.0%, 65.7%의 응답률을 보임. 양돈 분야 전문가는 공무원(10명), 학계(13명), 생산자 단체(13명), 수입·유통·가공업체(13명)로 구성되며, 낙농 분야 전문가는 공무원(9명), 학계(13명), 생산자 단체(12명), 관련업체(12명)로 구성됨. 설문결과에 대한 일관성 검증을 통해 CR(Consistency Ratio)값이 0.1미만인 응답만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반영
- 12) KREI 농업관측센터의 품목별 표본농가를 활용하여 2013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

○ 전문가 그룹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공무원(0.57), 학계(0.60), 수입·유통·가공업체(0.72) 그룹은 국내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공급증가’를 지적한 반면, 생산자 단체는 ‘수입증가’(0.45)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함

○ 전문가 평가 결과, 국내 공급증가는 세부적으로 ‘양돈농가의 규모(사육두수) 확대’(0.37)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0.23)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증가의 세부원인으로는 ‘구제역 발병 이후 할당관세물량 확대’(0.12)와 ‘FTA 발효와 돼지고기 관세인하(0.11)’가 유사한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양돈농가는 돼지고기 가격하락의 요인별 기여도에 대해 ①수입 증가(50.8%), ②국내 공급증가(28.9%), ③국내 수요감소(20.3%) 순으로 인식

○ 돼지고기 가격하락을 초래한 세부요인별 기여도는 ‘FTA 발효와 돼지고기 관세인하’(22.8%), ‘구제역 발병 이후 할당관세물량 확대’(18.6%), ‘양돈농가의 규모(사육두수) 확대’(15.1%),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1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돼지고기 가격하락의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와 생산농가의 인식 차이를 확인

○ 최근의 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원인에 대하여 양돈 분야 전문가는 국내 공급 증가를, 생산농가는 수입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평가함

- 전문가는 수입증가 세부요인인 ‘구제역 발병 이후 할당관세물량 확대’와 ‘FTA 발효에 따른 돼지고기 관세인하’이 국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기여한 정도를 거의 동일하게 평가함

- 반면, 생산농가는 ‘FTA 발효에 따른 돼지고기 관세인하’가 ‘구제역 발병 이후 할당관세물량 확대’보다 국내가격 하락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4. 국산 돼지고기 가격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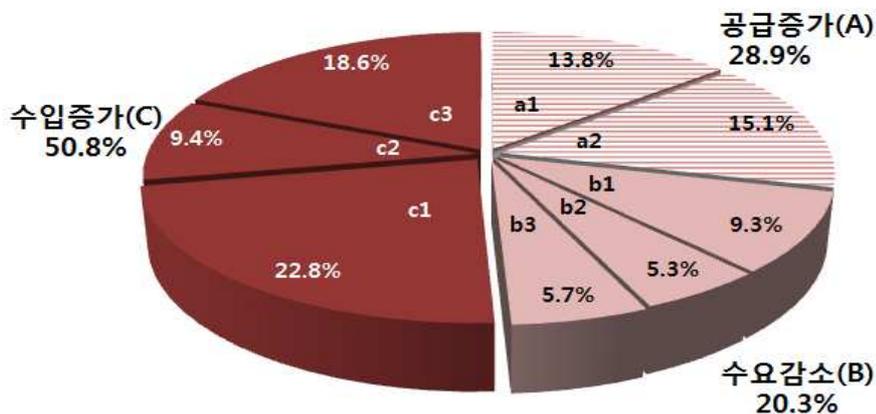
국내가격 하락요인(구성부문)	세부요인(평가항목)
국내 공급증가(A)	(a1)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모돈 두당출하두수(MSY) 증가)
	(a2) 양돈농가의 규모(사육두수) 확대
국내 수요감소(B)	(b1)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소비자의 구매력 감소
	(b2) 건강·미용 등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수요 감소
	(b3) 한우, 닭고기 등 대체재의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대체
수입증가(C)	(c1) FTA 발효와 돼지고기 관세인하
	(c2) FTA 체결국의 국내 마케팅 강화와 수입산에 대한 선호 증가
	(c3) 구제역 발병이후 할당관세물량 확대

표 5. 국산 돼지고기 가격하락 요인별 중요도 계측결과 (전문가)

구 분		전체(49명)		공무원(10명)		학계(13명)		생산자단체(13명)		관련업체(13명)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A	a1	0.60	②0.23	0.57	②0.19	0.60	②0.25	0.44	③0.17	0.72	②0.27
	a2		①0.37		①0.38		①0.35		①0.27		①0.45
B	b1	0.12	0.07	0.06	0.03	0.16	③0.11	0.10	0.06	0.13	0.08
	b2		0.02		0.02		0.02		0.01		0.03
	b3		0.03		0.01		0.04		0.03		0.02
C	c1	0.28	0.11	0.36	③0.14	0.24	0.09	0.45	②0.23	0.15	0.02
	c2		0.06		0.11		0.04		0.08		0.04
	c3		③0.12		0.12		0.11		0.14		③0.09

주: 관련업체는 수입, 유통, 가공업체를 포함.

그림 6. 국산 돼지고기 가격하락 요인별 기여도 조사결과 (양돈농가)



4.2. 양돈산업 FTA 보완대책에 대한 인식

□ 양돈 전문가 조사(AHP) 결과, FTA 이행에 대응한 양돈분야 정책 과제의 중요도는 ①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0.52), ②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 지원(0.20), ③단기 피해보전대책(0.15), ④가축방역 및 기술보급(0.12)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룹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가 모든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됨. 공무원(0.21), 학계(0.23), 관련업체(0.29) 그룹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가 부여된 정책과제는 ‘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 지원’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자 단체는 ‘단기 피해보전대책’(0.23)을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함

○ FTA 이행에 대응한 정책수단별 중요도는 ‘브랜드경영체 및 가축계열화 지원’(0.18), ‘시설현대화’(0.16), ‘사료산업 종합지원’(0.10)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공무원 그룹은 ‘양돈 자조금’(0.18)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고, 생산자단체와 관련업체는 각각 ‘폐업지원’(0.14)과 ‘이력추적 시스템’(0.11)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

□ 양돈농가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①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38.7%), ②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 지원(26.0%), ③단기 피해보전대책(18.2%), ④가축방역 및 기술보급(17.1%) 순으로 인식

○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별 우선순위는 ‘사료산업 종합지원’(12.6%), ‘축사시설현대화’(12.1%), ‘폐업지원’(11.1%),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10.8%) 순으로 나타남

□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생산농가의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와 생산농가 모두 ‘경쟁력제고 및 수급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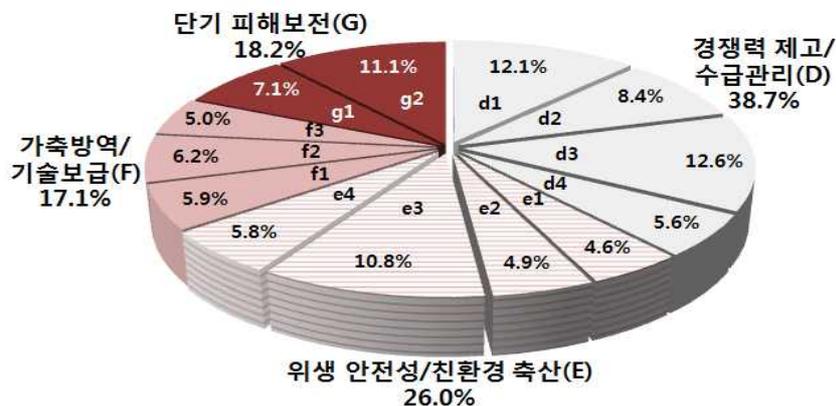
표 6. FTA 이행에 대응하여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

FTA 대응 양돈 분야 정책과제(구성부문)	정책수단(평가항목)
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D)	(d1) 축사시설현대화
	(d2) 브랜드경영체 및 가축계열화 지원
	(d3) 사료산업 종합지원
	(d4) 양돈 자조금
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지원(E)	(e1) 이력추적 시스템
	(e2) HACCP 컨설팅 및 인증 지원
	(e3)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e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유기, 무항생제)
가축방역 및 기술보급(F)	(f1) 가축방역 및 위생방역본부 지원
	(f2) 가축계량 및 종축장 전문화 지원
	(f3) 위생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단기 피해보전(G)	(g1) 피해보전직불제
	(g2) 폐업지원

표 7. FTA 이행에 대응한 양돈 분야 정책수단별 우선순위 계측결과 (전문가)

구분		전체(49명)		공무원(10명)		학계(13명)		생산자단체(13명)		관련업체(13명)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D	d1	0.52	②0.16	0.59	②0.18	0.49	②0.12	0.55	②0.18	0.47	②0.17
	d2		①0.18		③0.17		③0.10		①0.28		①0.19
	d3		③0.10		0.07		①0.19		0.05		0.06
	d4		0.08		①0.18		0.07		0.05		0.05
E	e1	0.20	0.06	0.21	0.04	0.23	0.07	0.11	0.01	0.29	③0.11
	e2		0.06		0.07		0.05		0.03		0.10
	e3		0.07		0.08		0.07		0.06		0.06
	e4		0.02		0.03		0.03		0.01		0.02
F	f1	0.12	0.05	0.12	0.04	0.15	0.06	0.11	0.04	0.11	0.05
	f2		0.04		0.04		0.03		0.05		0.04
	f3		0.03		0.04		0.05		0.01		0.01
G	g1	0.15	0.08	0.08	0.05	0.14	0.05	0.23	0.09	0.14	0.09
	g2		0.08		0.03		0.09		③0.14		0.04

그림 7. 양돈 분야 정책수단별 선호도 조사 결과 (양돈농가)



4.3. 국산 원유 생산여건에 대한 인식

□ 낙농 전문가 조사(AHP) 결과, 최근 국산 원유 생산여건 변화요인 별 중요도는 ①시유소비 정체 등 국내 수급요인(0.68), ②유제품 수입증가(0.32)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룹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국내 수급요인’을 공무원(0.56), 학계(0.85), 생산자단체(0.62), 관련업체(0.63) 그룹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함

○ 국산원유 생산여건을 악화시킨 세부요인별 중요도는 ‘시유 소비정체 및 감소’(0.32), ‘FTA 발효와 낙농품 관세인하’(0.15), ‘현행 원유가격 결정 방식과 쿼터제도’(0.14) 순으로 나타남

□ 낙농가는 국산 원유 생산여건 악화 요인별 기여도를 ①유제품 수입증가(61.3%), ②국내 수급요인(38.8%) 순으로 인식

○ 국산원유 생산여건을 악화시킨 세부요인별 기여도는 ‘FTA 발효와 낙농품 관세인하’(26.4%), ‘구제역 발병이후 할당관세물량 확대’(18.6%), ‘사료가격 상승’(18.0%), ‘FTA 체결국의 국내시장 마케팅(홍보, 유통망 구축 등) 강화 및 수입산에 대한 선호 증가’(1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국산 원유의 생산여건 악화 요인에 대하여 전문가와 생산농가의 입장 차이가 뚜렷

○ 낙농 분야 전문가는 국내 수급요인을, 생산농가는 유제품 수입증가를 국산 원유 생산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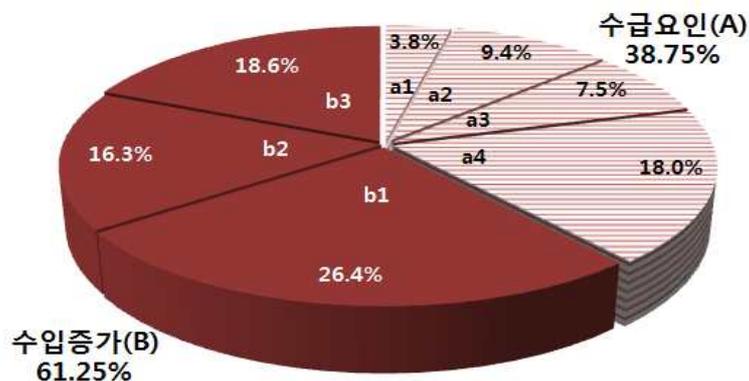
표 8. 국산 원유 생산여건 변화 요인

원유 생산여건 변화 요인(구성부문)	세부요인(평가항목)
국내 수급요인(A)	(a1) 원유(우유) 과잉생산
	(a2) 시유 소비 정체 및 감소
	(a3) 현행 원유가격 결정방식과 쿼터 제도
	(a4) 사료가격 상승
유제품 수입증가(B)	(b1) FTA 발효와 낙농품 관세인하
	(b2) FTA 체결국의 국내시장 마케팅(홍보, 유통망 구축 등) 강화 및 수입산에 대한 선호 증가
	(b3) 구제역 발병이후 할당관세물량 확대

표 9. 국산 원유 생산여건 변화 요인별 중요도 계측결과 (전문가)

구 분		전체(46명)		공무원(9명)		학계(13명)		생산자단체(23명)		관련업체(12명)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A	a1	0.68	0.11	0.56	0.03	0.85	③0.22	0.62	③0.10	0.63	0.04
	a2		①0.32		①0.31		②0.24		①0.40		①0.27
	a3		③0.14		0.08		①0.28		0.08		0.11
	a4		0.10		0.14		0.11		0.04		②0.21
B	b1	0.32	②0.15	0.44	②0.20	0.15	0.06	0.38	②0.20	0.37	③0.20
	b2		0.08		③0.16		0.04		0.09		0.09
	b3		0.09		0.08		0.06		0.08		0.08

그림 8. 국내 원유 생산여건 변화 요인별 기여도 조사결과 (낙농가)



4.4. 낙농산업 FTA 보완대책에 대한 인식

□ 낙농 전문가 조사(AHP) 결과, FTA에 대응한 낙농분야 정책과제의 중요도는 ①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0.57), ②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 지원(0.20), ③가축방역 및 기술보급(0.13), ④단기 피해보전대책(0.10)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룹을 세분하여 보면, ‘경쟁력제고 및 수급관리’가 모든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한편,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공무원(0.25), 학계(0.21), 관련업체(0.18) 그룹은 ‘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을, 생산자단체는 ‘가축방역 및 기술보급’(0.21)을 지목

○ FTA에 대응한 정책수단별 중요도는 ‘사료산업 종합지원’(0.24), ‘축사 시설현대화’(0.14), ‘가공원료유(잉여원유) 지원’(0.13) 순으로 나타남

□ 낙농가는 FTA 보완대책의 우선순위를 ①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37.9%), ②단기 피해보전대책(24.5%), ③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22.4%), ④가축방역 및 기술보급(15.3%) 순으로 인식

○ 낙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별 우선순위는 ‘사료산업 종합지원’(16.8%), ‘피해보전직불제’(13.2%),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12.0%), ‘폐업지원’(11.3%) 순으로 나타남

□ FTA 대응 및 낙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경쟁력제고와 수급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는 전문가와 농가가 인식을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견해차 존재

○ 낙농 분야 전문가는 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 지원을, 생산농가는 단기 피해보전대책을 두 번째 주요 정책수단으로 평가함

- 전문가 집단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0.05)와 ‘폐업지원’(0.05)에 대해 우선순위를 낮게 둔 반면, 생산농가는 ‘피해보전직불제’(13.2%)와 ‘폐업지원’(11.3%)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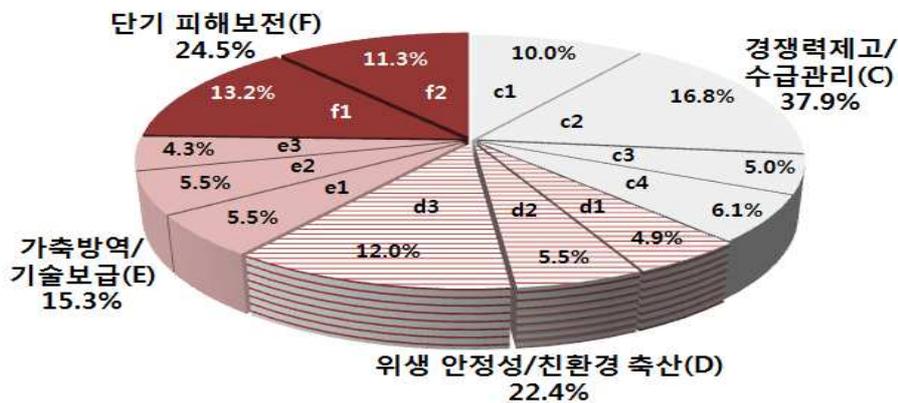
표 10. FTA 이행에 대응하여 낙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

FTA 대응 낙농분야 정책과제(구성부문)	정책수단(평가항목)
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C)	(c1) 축사시설현대화
	(c2) 사료산업 종합지원
	(c3) 낙농 자조금
	(c4) 가공원료유(잉여원유) 지원
위생 안정성 및 친환경 축산 지원(D)	(d1) 이력추적 시스템
	(d2) HACCP 컨설팅 및 인증 지원
	(d3)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방역 및 기술 보급사업(E)	(e1) 가축방역 및 위생방역본부 지원
	(e2) 가축계량 및 종축장 전문화 지원
	(e3) 위생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단기 피해보전(F)	(f1) 피해보전직불제
	(f2) 폐업지원

표 11.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의 소속별 가중치

구 분		전체(46명)		공무원(9명)		학계(13명)		생산자단체(23명)		관련업체(12명)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구성 부문	평가 항목
C	c1	0.57	②0.14	0.57	0.07	0.51	②0.17	0.56	0.09	0.67	③0.11
	c2		①0.24		①0.31		①0.19		②0.21		①0.29
	c3		0.07		0.09		0.08		0.03		0.04
	c4		③0.13		③0.10		0.07		①0.23		②0.24
D	d1	0.20	0.06	0.25	0.08	0.21	0.06	0.18	0.03	0.18	0.05
	d2		0.04		0.07		0.03		0.03		0.03
	d3		0.10		②0.10		③0.12		0.12		0.10
E	e1	0.13	0.03	0.09	0.01	0.10	0.04	0.21	0.03	0.07	0.02
	e2		0.05		0.02		0.02		③0.14		0.03
	e3		0.04		0.06		0.04		0.03		0.03
F	f1	0.10	0.05	0.09	0.06	0.18	0.07	0.06	0.04	0.08	0.04
	f2		0.05		0.03		0.11		0.02		0.04

그림 9. 낙농 분야 정책수단별 선호도 조사 결과 (낙농가)



5. 한·EU FTA 이행 2년 평가와 정책과제

□ 한·EU FTA 이행 첫해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늘었으나 이행 2년차에는 감소

- 이는 2010년 말 구제역 발병에 따른 일시적인 국내 축산물 공급부족으로 이행 첫해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국내 공급이 회복됨에 따라 이행 2년차에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

□ 한·EU FTA 발효 후 기존 대(對) EU 교역품목의 수출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신규 품목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아직까지는 FTA 이행 초기에 해당되며, 구제역 여파 등 국내 수급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FTA 파급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움

□ 구제역 발병 이후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EU산 돼지고기는 FTA 특혜관세의 연차별 인하에 따라 현재 점유율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관세가 감축되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국내시장에 서의 경합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국산과 수입산의 차별화 정도가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편인 돼지고기의 경우, EU·미국·칠레와 체결한 FTA 이행이 진전됨에 따라 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 FTA 이행으로 매년 증량되는 무관세쿼터와 연차별 관세인하로 EU산 유제품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함에 따라 점진적인 수입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행 3년차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생산자의 수입피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파급영향 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

□ FTA 발효 이후 양돈과 낙농분야의 수급여건 악화 원인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축산농가의 인식 차이가 존재

- 농가는 국내 수급요인보다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 그룹은 돼지 사육두수 증가, 시유 소비정체(감소)와 같은 국내 수급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이러한 인식 차이는 농정에 대한 생산농가의 신뢰와 정책수용성을 낮출 수 있음. 따라서 정책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생산농가 간의 인식 공유를 위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기능 강화가 필요함

□ FTA 이행에 대응한 양돈과 낙농 분야의 최우선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농업인 모두 ‘경쟁력제고와 수급관리’를 지적

-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경쟁력제고 관련 투융자 사업(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업의 내실화가 중요함
- 또한, 적극적인 수급관리 정책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축산물 공급조절 외에도 수요확대 관련 신규정책 개발이 필요함

□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 통한 시장차별화 강화가 중요

-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수입 농산물보다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 단계에 걸쳐 제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함

부표 1. 한·EU FTA 이행 2년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

구 분	수입량(톤)			수입액(천 \$)			EU산 수입 비중(%)	
	09.7~11.5	11.7~13.5	증감율	09.7~11.5	11.7~13.5	증감율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돼지고기	244,436	326,326	33.5	691,125	1,035,174	49.8	40.4	43.2
위스키	39,157	36,740	-6.2	409,579	394,878	-3.6	96.7	97.1
옥수수	536,966	790,597	47.2	132,773	279,010	110.1	3.4	5.6
포도주	24,865	30,878	24.2	126,886	171,257	35.0	56.8	58.6
혼합조제식료품	25,473	32,474	27.5	115,105	162,389	41.1	7.5	8.0
유장	55,815	51,650	-7.5	136,014	157,426	15.7	61.4	62.1
기타 양모, 조수모 등	896	1,250	39.5	95,584	148,768	55.6	43.6	40.0
초콜릿	10,805	16,947	56.8	93,435	147,088	57.4	38.2	43.2
치즈	13,022	22,607	73.6	81,259	142,017	74.8	16.6	19.9
가죽	1,039	979	-5.8	88,892	102,802	15.6	39.7	31.5
탈지분유	5,861	28,699	389.6	19,990	98,999	395.2	31.5	58.5
기타비휘발성유지	33,644	24,647	-26.7	99,952	84,017	-15.9	85.5	83.1
감자전분	81,946	94,414	15.2	58,933	75,740	28.5	92.9	95.2
커피조제품	1,375	4,273	210.8	18,150	72,780	301.0	19.4	31.8
올리브유	21,625	20,752	-4.0	71,129	69,239	-2.7	94.6	94.0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46,669	49,395	5.8	54,154	61,289	13.2	34.6	31.1
앞담배	10,223	7,833	-23.4	81,398	58,917	-27.6	18.9	12.2
기타코코아조제품	12,916	11,940	-7.6	49,648	56,848	14.5	42.6	35.4
기타식물성액즙	322	482	49.6	50,788	55,798	9.9	36.0	29.7
커피	3,435	4,170	21.4	32,830	54,093	64.8	4.1	5.8
카세인	4,655	5,426	16.6	37,255	54,040	45.1	40.9	45.3
물	20,457	40,897	99.9	20,854	53,201	155.1	75.0	77.2
맥주	37,230	59,141	58.9	32,743	51,500	57.3	38.9	37.5
음료베이스	1,880	2,292	21.9	35,622	47,481	33.3	73.2	74.1
개 사료	10,733	16,161	50.6	27,919	43,140	54.5	17.4	19.9
생우유	4,916	14,268	190.2	13,036	39,337	201.8	33.9	43.9
기타 축산조제품	8,475	7,259	-14.3	34,146	38,450	12.6	20.7	17.7
유아용조제식료품	7,537	12,521	66.1	19,549	37,612	92.4	54.2	66.2
기타당	16,033	12,118	-24.4	38,036	37,381	-1.7	25.2	21.9
비스킷	6,467	8,470	31.0	27,440	36,431	32.8	22.9	22.8
코코아분말	6,176	6,212	0.6	25,822	36,335	40.7	44.8	41.7
기타과스타	11,684	25,798	120.8	16,374	34,549	111.0	34.2	42.1
효소	3,095	2,941	-5.0	29,690	34,104	14.9	30.3	24.7
소원피	7,069	14,971	111.8	12,641	30,987	145.1	11.2	14.9
보조사료	10,076	10,783	7.0	22,237	30,285	36.2	49.4	47.3
웹톤	1,746	2,237	28.1	30,453	29,880	-1.9	32.5	24.8
해바라기씨유	9,457	15,462	63.5	16,926	28,765	69.9	30.4	44.1
채소종자	926	1,599	72.7	17,357	28,711	65.4	18.5	20.6
난백	1,441	2,119	47.0	19,309	27,259	41.2	44.9	43.9
캔디	2,655	5,670	113.6	13,141	26,453	101.3	13.2	17.3
아이스크림	2,911	5,066	74.0	17,157	25,736	50.0	64.5	77.4
기타사료용조제품	7,597	15,665	106.2	12,650	25,150	98.8	16.0	22.1
기타과실	2,586	4,232	63.6	13,774	23,103	67.7	4.3	4.4
조제분유	265	1,116	321.3	3,708	21,918	491.1	6.0	28.0
빵	1,395	2,992	114.4	8,921	21,662	142.8	34.8	43.5
유당	8,238	10,550	28.1	9,944	21,147	112.7	33.8	33.2
양장	5,676	8,127	43.2	11,490	21,133	83.9	12.6	13.9

주1) 수입비중은 수입액 기준임.

2) 2011.7~2013.5 수입액 중 목재류 등을 제외하고 2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 제시하였음.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부표 2. 한·EU FTA 이행 2년 주요 품목별 수출 변화

구 분	수출량(톤)			수출액(천 \$)		
	09.7~11.5	11.7~13.5	증감율	09.7~11.5	11.7~13.5	증감율
혼합조제식료품	151,463	125,969	-16.8	272,653	328,133	20.3
라면	6,331	8,498	34.2	18,259	26,991	47.8
기타당	1,628	2,009	23.4	26,069	26,901	3.2
기타음료	7,945	22,693	185.6	6,419	18,566	189.2
너타리머섯	1,058	2,234	111.3	4,981	11,067	122.2
기타식물성점질물	1,001	991	-1.0	9,309	10,035	7.8
젤라틴	714	340	-52.4	8,890	9,950	11.9
기타과스타	2,621	3,349	27.8	5,472	6,861	25.4
면	5,829	4,114	-29.4	9,389	6,522	-30.5
커피조제품	476	664	39.5	4,560	6,284	37.8
가죽	273	293	7.3	6,498	5,755	-11.4
채소종자	32	73	126.8	2,639	5,063	91.8
김치	1,057	1,441	36.3	3,323	5,043	51.8
기타베이커리제품	907	2,050	126.1	1,727	4,692	171.8
국수	3,352	2,225	-33.6	5,945	4,485	-24.6
단일과실조제품	2,614	5,821	122.7	1,868	4,235	126.6
인스탄트면	287	2,590	801.9	867	4,080	370.4
균질화담배	52	1,392	2,567.1	163	3,743	2,191.5
기타조제식료품	495	1,701	243.7	927	2,777	199.6
감귤	118	1,861	1,478.1	88	2,697	2,976.2
기타소오스제품	388	717	84.8	1,390	2,661	91.4
기타 동물성유지분획물	4	42	939.3	368	2,640	617.9
선인장	298	273	-8.5	3,029	2,576	-15.0
녹차	7	39	446.6	159	2,431	1,429.8
기타 양모, 조수모 등	39	41	6.4	1,380	2,219	60.8
고추장	714	849	18.9	1,604	2,213	37.9
곡류조제품	379	451	19.2	1,920	2,189	14.0
기타식물성액즙	13	18	43.9	765	2,124	177.6
비스킷	229	337	47.3	1,164	1,809	55.4
기타머섯	446	343	-23.0	2,005	1,774	-11.5
팝콘	5	2	-58.8	624	1,732	177.3
백삼정	14	11	-17.5	1,881	1,671	-11.2
벽지	47	80	69.0	901	1,581	75.5
간장	1,102	1,281	16.2	1,100	1,525	38.6
팽이버섯	262	529	101.6	700	1,474	110.6
베이커리반죽	442	590	33.5	1,305	1,375	5.4
기타채소	257	298	16.1	876	1,189	35.7
효소	6	23	286.6	124	1,117	801.1
기타과실	37	137	268.4	201	1,082	437.2
물	1,106	1,370	23.9	576	1,066	85.0
위스키	40	116	189.8	478	1,048	119.3

주: 2011.7~2013.5 수출액 중 목재류 등을 제외하고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 제시하였음.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부표 3. 한·EU FTA 이행과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집약도·다양도 변화

단위: 개, 백만 \$

구 분	수 입						수 출					
	집약도(기존 품목)			다양도(신규 품목)			집약도(기존 품목)			다양도(신규 품목)		
	품목 수	금액		품목 수	금액		품목 수	금액		품목 수	금액	
		발효 전 2년	발효 후 2년		발효 전 2년	발효 후 2년		발효 전 2년	발효 후 2년		발효 전 2년	발효 후 2년
곡물	50	339	419	5	0	3	20	3	2	7	0	0.126
과일·채소	62	114	151	7	0	0.9	40	33	38	9	0	0.074
가공식품	177	1,980	2,338	9	0	5	113	416	487	17	0	0.644
축산물	62	1,482	2,059	11	0	1	26	21	23	14	0	1.1
임산물	64	570	649	3	0	0.009	45	14	21	8	0	0.052
소계	415	4,485	5,616	35	0	9.9	244	487	571	55	0	2

주1) 교역 다양도 및 집약도 변화는 실품목(AG-code) 기준으로 제시.

2) 곡물은 곡류, 서류, 두류, 전분, 채유종실, 박류, 기타곡식의 합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합계. 가공식품은 농산물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부표 4. EU산 돼지고기의 주요 세번별 수입변화

단위: 천 \$, 톤, \$/kg

구 분		발효 전 2년 (09.7~10.5)	발효 전 1년 (10.7~11.5)	발효 후 1년 (11.7~12.5)	발효 후 2년 (12.7~13.5)	연차별 전년대비 증감율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돼지고기 전체	금액	237,942	426,658	638,924	354,003	49.8	-44.6
	중량	92,387	142,359	196,041	118,055	37.7	-39.8
	단가	2.58	3.00	3.26	3.00	8.74	-7.99
냉장삼겹살 (0203.19.1000)	금액	0	0	6,324	477	-	-92.5
	중량	0	0	898	87	-	-90.3
	단가	0.00	0.00	7.04	5.48	-	-22.25
냉동삼겹살 (0203.29.1000)	금액	165,138	241,139	435,018	232,473	80.4	-46.6
	중량	49,815	72,347	105,536	58,465	45.9	-44.6
	단가	3.32	3.33	4.12	3.98	23.67	-3.53
냉동돼지고기 (0203.29.9000)	금액	59,249	115,442	166,269	95,435	44.0	-42.6
	중량	38,962	60,485	80,508	51,366	33.1	-36.2
	단가	1.52	1.91	2.07	1.86	8.21	-10.04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부표 5. 돼지고기의 국가별 수입변화

단위: 톤, %

구 분	발효 전 2년 (09.7~10.5)		발효 전 1년 (10.7~11.5)		발효 후 1년 (11.7~12.5)		발효 후 2년 (12.7~13.5)		연차별 전년대비 증감율	
	중량	비중	중량	비중	중량	비중	중량	비중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전체	270,701	-	353,520	-	426,948	-	301,785	-	20.8	-29.3
EU	90,188	33.3	137,976	39.0	191,435	44.8	111,586	37.0	38.7	-41.7
미국	77,092	28.5	107,824	30.5	127,267	29.8	104,676	34.7	18.0	-17.8
캐나다	53,119	19.6	60,164	17.0	62,675	14.7	45,284	15.0	4.2	-27.7
칠레	42,357	15.6	39,378	11.1	36,283	8.5	32,763	10.9	-7.9	-9.7

주: 국별 수입량은 냉동·냉장삼겹살, 냉동돼지고기, 기타냉동설육 합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부표 6. EU산 주요 유제품(세번별) 수입변화

단위: 천 \$, 톤, \$/kg

구 분			발효 전 2년	발효 전 1년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연차별 전년대비 증감율	
			(09.7~10.5)	(10.7~11.5)	(11.7~12.5)	(12.7~13.5)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치즈	모차렐라치즈 (0406.10.1010)	금액	7,533	15,852	26,657	28,752	68.2	7.9
		중량	1,920	3,513	5,764	6,447	64.1	11.8
		단가	3.92	4.51	4.62	4.46	2.48	-3.56
	기타가공치즈 (0406.30.0000)	금액	10,386	10,820	12,222	15,001	13.0	22.7
		중량	945	1,150	1,085	1,343	-5.7	23.7
		단가	10.99	9.41	11.26	11.17	19.74	-0.80
	가우더치즈 (0406.90.2000)	금액	2,092	4,441	6,226	7,683	40.2	23.4
		중량	607	1,035	1,280	1,839	23.7	43.7
		단가	3.45	4.29	4.86	4.18	13.35	-14.12
분유	탈지분유 (0402.10.1010)	금액	4,609	15,219	70,509	17,068	363.3	-75.8
		중량	1,711	4,104	19,914	5,152	385.2	-74.1
		단가	2.69	3.71	3.54	3.31	-4.53	-6.43
	전지분유 (0402.21.1000)	금액	304	1,172	5,294	1,143	351.8	-78.4
		중량	125	254	1,161	261	357.7	-77.5
		단가	2.43	4.62	4.56	4.37	-1.29	-4.02
	조제분유 (1901.10.1010)	금액	1,016	2,568	7,711	13,268	200.3	252.4
		중량	96	154	381	688	147.5	227.0
		단가	10.55	16.67	20.23	19.28	21.32	7.77
냉동 크림	기타 (0401.50.9000)	금액	3,164	9,192	16,022	17,050	74.31	6.41
		중량	1,435	3,175	5,449	6,165	71.60	13.14
		단가	2.21	2.89	2.94	2.77	1.58	-5.95
버터	버터 (0405.10.0000)	금액	1,927	4,122	2,790	2,764	-32.31	-0.93
		중량	372	697	388	417	-44.35	7.56
		단가	5.18	5.92	7.20	6.63	21.65	-7.90
카세인	기타 카세인 (3501.10.9000)	금액	1,623	2,176	6,381	5,236	193.23	-17.93
		중량	271	241	629	654	160.82	3.99
		단가	5.99	9.03	10.15	8.01	12.42	-21.08
	커피용 카세인염 (3501.90.1110)	금액	8,517	12,248	14,087	9,993	15.01	-29.06
		중량	1,263	1,361	1,348	1,015	-0.94	-24.70
		단가	6.74	9.00	10.45	9.85	16.10	-5.79
	기타용 카세인염 (3501.90.1190)	금액	4,271	7,410	8,097	7,668	9.27	-5.30
		중량	618	784	758	766	-3.38	1.09
		단가	6.91	9.45	10.69	10.01	13.09	-6.32
기타	유장 (0404.90.1000)	금액	27,513	64,507	51,256	43,539	-20.5	-15.1
		중량	11,410	21,602	14,824	13,231	-31.4	-10.7
		단가	2.41	2.99	3.46	3.29	15.79	-4.83
	유당 (1702.11.1000)	금액	3,540	3,409	7,465	5,755	119.0	-22.9
		중량	3,680	2,523	4,117	2,192	63.1	-46.8
		단가	0.96	1.35	1.81	2.63	34.24	44.80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부표 7. 주요 유제품의 국가별 수입변화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2년 (09.7~10.5)		발효 전 1년 (10.7~11.5)		발효 후 1년 (11.7~12.5)		발효 후 2년 (12.7~13.5)		연차별 전년대비 증감율	
		중량	비중	중량	비중	중량	비중	중량	비중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치즈	전체	26,733	-	35,996	-	40,920	-	48,303	-	13.7	18.0
	EU	3,472	13.0	5,698	15.8	8,129	19.9	9,629	19.9	42.7	18.4
	미국	4,581	17.1	14,000	38.9	16,075	39.3	18,901	39.1	14.8	17.6
	뉴질랜드	8,074	30.2	8,662	24.1	11,414	27.9	15,627	32.4	31.8	36.9
탈지분유	전체	8,924	-	11,120	-	28,991	-	14,124	-	160.7	-51.3
	EU	1,711	19.2	4,104	36.9	19,914	68.7	5,152	36.5	385.2	-74.1
	호주	2,902	32.5	4,197	37.7	5,007	17.3	6,301	44.6	19.3	25.9
	미국	339	3.8	569	5.1	988	3.4	2,130	15.1	73.6	115.5
전지분유	전체	1,273	-	1,912	-	3,843	-	1,648	-	101.0	-57.1
	EU	125	9.8	254	13.3	1,161	30.2	261	15.8	357.7	-77.5
	호주	559	43.9	938	49.1	1,629	42.4	657	39.9	73.6	-59.7
	뉴질랜드	130	10.2	250	13.1	1,032	26.9	641	38.9	312.7	-37.9
조제분유	전체	2,139	-	2,568	-	2,576	-	2,258	-	0.3	-12.4
	EU	96	4.5	154	6.0	381	14.8	688	30.5	147.5	80.5
	호주	0	0.0	360	14.0	890	34.5	771	34.1	146.9	-13.4
	뉴질랜드	729	34.1	929	36.2	1,122	43.5	610	27.0	20.7	-45.7
냉동크림	전체	1,772	-	4,217	-	6,487	-	7,022	-	53.8	8.3
	EU	1,435	81.0	3,175	75.3	5,449	84.0	6,165	87.8	71.6	13.1
	미국	0	0.0	1	0.0	288	4.4	267	3.8	26,440	-7.2
	뉴질랜드	324	18.3	757	18.0	567	8.7	573	8.2	-25.2	1.0
버터	전체	5,958	-	5,809	-	8,282	-	4,251	-	42.6	-48.7
	EU	504	8.5	964	16.6	569	6.9	595	14.0	-41.0	4.6
	뉴질랜드	2,722	45.7	3,125	53.8	4,886	59.0	1,886	44.4	56.3	-61.4
	미국	122	2.1	322	5.6	1,226	14.8	653	15.4	280.3	-46.7
카세인	전체	5,407	-	5,204	-	4,179	-	3,938	-	-19.7	-5.8
	EU	2,152	39.8	2,386	45.9	2,734	65.4	2,435	61.8	14.6	-11.0
	뉴질랜드	2,029	37.5	1,814	34.9	991	23.7	1,116	28.3	-45.4	12.7
	호주	0	0.0	98	1.9	169	4.0	186	4.7	72.4	9.8
유장	전체	18,541	-	28,712	-	18,775	-	17,990	-	-34.6	-4.2
	EU	11,410	61.5	21,602	75.2	14,824	79.0	13,231	73.5	-31.4	-10.7
	캐나다	6,269	33.8	5,973	20.8	3,735	19.9	4,647	25.8	-37.5	24.4
	칠레	48	0.3	70	0.2	87	0.5	78	0.4	24.5	-11.1
유당	전체	12,019	-	16,118	-	17,131	-	15,922	-	6.3	-7.1
	EU	4,572	38.0	3,426	21.3	6,052	35.3	4,053	25.5	76.6	-33.0
	미국	6,417	53.4	10,853	67.3	6,737	39.3	8,907	55.9	-37.9	32.2
	캐나다	65	0.5	506	3.1	858	5.0	1,232	7.7	69.6	43.6

주: 각 주요 품목 수입량은 해당 HS코드 중 주요 세번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부표 8. EU산 기타 농축산물의 주요 세번별 수입변화

단위: 천 \$, 톤, \$/kg

구 분		발효 전 2년	발효 전 1년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연차별 전년대비 증감율	
		(09.7~10.5)	(10.7~11.5)	(11.7~12.5)	(12.7~13.5)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적포도주 (2204.21.1000)	금액	36,595	38,726	47,436	54,352	22.5	14.6
	중량	5,860	6,128	6,773	8,232	10.5	21.5
	단가	6.25	6.32	7.00	6.60	10.83	-5.73
기타옥수수 (1005.90.9000)	금액	46,881	83,003	107,842	129,912	29.93	20.46
	중량	214,173	317,853	308,927	355,424	-2.81	15.05
	단가	0.22	0.26	0.35	0.37	33.68	4.71
감자전분 (1108.13.0000)	금액	26,391	29,327	38,250	33,508	30.42	-12.40
	중량	36,846	39,871	45,841	43,358	14.97	-5.42
	단가	0.72	0.74	0.83	0.77	13.44	-7.38
맥주 (2203.00.0000)	금액	14,131	17,215	22,076	27,078	28.24	22.66
	중량	15,671	19,745	24,712	31,645	25.15	28.06
	단가	0.90	0.87	0.89	0.86	2.46	-4.22
초콜릿	금액	37,242	50,873	68,982	70,761	35.60	2.58
	중량	4,430	5,778	7,493	8,649	29.67	15.44
	단가	8.41	8.80	9.21	8.18	4.57	-11.14

주: 초콜릿은 2kg이하 초코렛, 블록 초코렛, 기타초코렛의 합계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부표 9. 기타 농축산물의 국가별 수입변화

단위: 톤, %

구 분		발효 전 2년		발효 전 1년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연차별 전년대비 증감율	
		(09.7~10.5)	비중	(10.7~11.5)	비중	(11.7~12.5)	비중	(12.7~13.5)	비중	발효 후 1년	발효 후 2년
포도주	전체	18,381	-	20,100	-	21,186	-	25,116	-	5.4	18.5
	EU	9,007	49.0	9,941	49.5	10,900	51.5	12,852	51.2	9.7	17.9
	칠레	4,821	26.2	5,643	28.1	5,765	27.2	6,445	25.7	2.2	11.8
	미국	2,193	11.9	2,368	11.8	2,163	10.2	3,146	12.5	-8.7	45.5
옥수수	전체	1,577,182	100.0	1,945,039	100.0	1,811,518	100.0	1,867,164	100.0	-6.9	3.1
	EU	214,173	13.6	317,853	16.3	308,927	17.1	355,424	19.0	-2.8	15.1
	미국	1,185,774	75.2	1,035,227	53.2	548,104	30.3	55,869	3.0	-47.1	-89.8
	브라질	91,400	5.8	135,802	7.0	72,197	4.0	769,866	41.2	-46.8	966.3
	우크라이나	0	0.0	0	0.0	277,208	15.3	85,717	4.6	-	-69.1
세르비아	46,480	2.9	277,113	14.2	535,134	29.5	445,467	23.9	93.1	-16.8	
감자전분	전체	37,641	100.0	42,778	100.0	48,326	100.0	43,969	100.0	13.0	-9.0
	EU	36,846	97.9	39,871	93.2	45,841	94.9	43,358	98.6	15.0	-5.4
	미국	37	0.1	41	0.1	31	0.1	31	0.1	-24.6	-2.2
맥주	전체	40,049	-	47,096	-	58,501	-	73,810	-	24.2	26.2
	미국	9,028	22.5	8,701	18.5	8,081	13.8	8,481	11.5	-7.1	4.9
	일본	6,997	17.5	7,940	16.9	13,570	23.2	19,366	26.2	70.9	42.7
	EU	15,671	39.1	19,745	41.9	24,712	42.2	31,645	42.9	25.2	28.1
초콜릿	전체	17,434	-	22,664	-	25,602	-	25,697	-	13.0	0.4
	미국	5,886	33.8	7,220	31.9	7,298	28.5	7,414	28.9	1.1	1.6
	EU	4,569	26.2	5,986	26.4	7,741	30.2	8,862	34.5	29.3	14.5
	싱가포르	1,832	10.5	2,690	11.9	2,640	10.3	2,200	8.6	-1.8	-16.7

주: 각 주요 품목은 해당 HS코드 중 주요 세번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찬)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욱,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7. 2

발 행 2013. 7. 3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67-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